

마태 12

1. 왕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심.....	1
2. 왕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.....	3
3. 분열된 집은 서지 못함.....	5
4. 용서받지 못하는 신성모독 죄.....	7
5.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함.....	8
6. 부정한 영이 되돌아옴.....	9
7. 왕의 어머니와 형제자매.....	9

1. 왕께서 안식일의 주인임

(마 12:1) 그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 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니라.

(마 12:2)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 이르되, 보시오,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나이다, 하거늘

(마 12:3)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?

(마 12:4) 그가 [하나님]의 집에 들어가 보여 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.

(마 12:5) 또는 안식일에 성전 안의 제사장들이 안식을

(막 2:23) 그분께서 안식일에 곡식 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가면서 곡식 이삭을 따기 시작하며

(막 2:24)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이르되, 보시오, 저들이 어찌하여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안식일에 행하나이까? 하니

(막 2:25)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다윗이 곤궁에 처하여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결코 읽어 본 적이 없느냐?

(막 2:26) 그가 대제사장 아비야달 시대에 [하나님]의 집에 들어가 보여 주는 빵 곧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? 하시고

(막 2:27)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,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안식일을

(눅 6:1) 첫째 안식일이 지나고 둘째 안식일에 그분께서 곡식 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곡식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으며

(눅 6:2) 바리새인들 중의 어떤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, 너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느냐? 하니

(눅 6:3)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,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행한 이 일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?

(눅 6:4) 그가 [하나님]의 집에 들어가 보여 주는 빵 곧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집어 먹고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느니라, 하시고

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
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?

(마 12:6) 그러나 내가 너희
에게 이르노니, 성전보다 더
큰 이가 이곳에 있느니라.

(마 12:7) 그러나, 내가 긍휼
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
니하노라, 하신 말씀이 무슨
뜻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
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
하였으리니

(마 12:8) 사람의 [아들]은 곧
안식일의 [주]니라, 하시니라.

위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나니
(막 2:28) 이러므로 사람의
[아들]은 또한 안식일의 [주]
니라, 하시니라.

(눅 6:5) 또 그들에게 이르시
되, 사람의 [아들]은 또한 안
식일의 [주]니라, 하시니라.

2. 왕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

(마 12:9)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.

(마 12:10) ¶ 보라,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 물어 이르되,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? 하니

(마 12:11)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올리지 아니하겠느냐?

(마 12:12) 그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? 그러므로 안식일에 잘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니라, 하시고

(마 12:13)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, 네 손을 앞으로 내밀라,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.

(마 12:14) ¶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협의하였으나

(마 12:15)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아시고 거기서 물러나시니라.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매 그분께서 그들을 다 고치시고

(마 12:16)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자기를 알리지 못하게 하셨으니

(막 3:1) 그분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라.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므로

(막 3:2)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거늘

(막 3:3) 그분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,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라, 하시고

(막 3:4) 그들에게 이르시되,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,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?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, 죽이는 것이 맞느냐? 하시니라.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매

(막 3:5) 그들의 마음이 강박하므로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, 네 손을 앞으로 내밀라,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.

(막 3:6)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즉시 헤롯 당원들과 의논하였으나

(막 3:7)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 바다로 가시니라.

(눅 6:6) 다른 안식일에도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더라.

(눅 6:7)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 그분께서 안식일에 고치려 하시는지 보려고 그분을 지켜보거늘

(눅 6:8)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,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나와 서라,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앞에 서니라.

(눅 6:9)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,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노라.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,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?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, 멸하는 것이 맞느냐? 하시며

(눅 6:10)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, 네 손을 앞으로 내밀라,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.

(눅 6:11)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자기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.

(마 12:17)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. 이르시되,

(마 12:18) 내가 택한 나의 종,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라.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.

(마 12:19)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.

(마 12:20)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판단의 공의를 보내어 승리에 이르게 할 때까지 하리니

(마 12:21)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신뢰하리라, 하셨느니라.

3. 분열된 집은 서지 못함

(마 12:22) 그때에 사람들이 마귀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자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고쳐 주시니 눈멀고 말 못하는 자가 말도 하고 보게 되니라.

(마 12:23)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르되,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시냐? 하나

(마 12:24)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,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, 하거늘

(마 12:25)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,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.

(마 12:26)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?

(마 12:27)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?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.

(마 12:28) 그러나 내가 [하나님]의 [영]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[하나님]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.

(마 12:29)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겠느냐?

(막 3:22)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르되, 그가 바알세불에 사로잡혀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는다, 하거늘

(막 3:23) 그분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,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?

(막 3:24) 또 만일 어떤 왕국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왕국은 서지 못하고

(막 3:25) 만일 어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서지 못하며

(막 3:26) 만일 사탄이 자기를 대적하여 일어나 분쟁하면 서지 못하고 종말을 맞느니라.

(막 3:27)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략하리라.

(눅 11:14) 그분께서 마귀를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말을 못하더라. 그 마귀가 나가매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므로 사람들이 놀랐으나

(눅 11:15) 그들 중의 더러는 말하기를, 그가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, 하고

(눅 11:16) 또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하거늘

(눅 11:17) 그분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,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.

(눅 11:18)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바알세불을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하니 만일 사탄 또한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?

(눅 11:19)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그들을 내쫓느냐?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.

(눅 11:20) 그러나 내가 [하나님]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[하나님]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.

(눅 11:21)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에

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략하리라.

(마 12:30)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,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헤치는 자니라.

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나 (눅 11:22)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에게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신뢰하던 그의 모든 무기를 그에게서 빼앗고 그의 노략물을 나누느니라.

(눅 11:23)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,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.

4. 용서받지 못하는 신성모독 죄

(마 12:31)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[성령님]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

(마 12:32)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[아들]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[성령님]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.

(마 12:33) 나무도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좋게 하든지 나무도 썩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썩게 하든지 하라. 나무는 그것의 열매로 아느니라.

(마 12:34) 오 독사들의 세대야,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?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.

(마 12:35)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.

(마 12:36)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계 보고를 하리라.

(마 12:37) 네 말들로 네가 의롭게 되며 네 말들로 네가 정죄 받으리라, 하시니라.

(막 3:28)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,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되

(막 3:29) [성령님]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, 하시니라.

(막 3:30)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,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, 하였기 때문이더라.

(눅 12:10)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[아들]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[성령님]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.

4.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함

(마 12:38)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의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, 선생님 이여, 우리가 선생님께서로부터 표적을 보기를 원하나이다, 하거늘

(마 12:39)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,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.

(마 12:40)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[아들]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.

(마 12:41)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, 보라,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.

(마 12:42)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, 보라,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.

(마 12:43)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쉼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

(마 12:44) 이에 이르되,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,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

(마 12:45)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일곱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.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, 하시니라.

(눅 11:29) 사람들이 함께 뻑뻑이 모였을 때에 그분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,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들이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니

(눅 11:30) 이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 같이 사람의 [아들]도 이 세대에게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라.

(눅 11:31)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그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, 보라,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.

(눅 11:32)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, 보라,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.

5. 부정한 영이 되돌아옴

(마 12:43)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
른 곳들로 다니며 쉼 곳을 구하나 전혀 찾
지 못하고

(마 12:44) 이에 이르되, 내가 내 집 곧 내
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, 하고는 가서
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
므로

(마 12:45)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
다른 영 일곱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
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
더 나쁘게 되니라.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
로 그와 같이 되리라, 하시니라.

(눅 11:24) 부정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와 마
른 곳을 두루 다니며 쉼 곳을 구하나 전혀
찾지 못하고 이르되, 내가 내 집 곧 내가
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, 하고는

(눅 11:25)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꾸
며져 있으므로

(눅 11:26)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
다른 영 일곱을 데려와 그들이 들어가서 거
기 거하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
더 나쁘게 되니라, 하시니라.

6. 왕의 어머니와 형제자매

(마 12:46) 그분께서 아직 사
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, 보
라,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
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
바라며 밖에 서 있더라.

(마 12:47) 그대에 한 사람이
그분께 이르되, 보소서, 선생
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
제들이 선생님과 말하기를
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, 하
거늘

(마 12:48) 그분께서 자기에
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
이르시되, 누가 내 어머니냐?
누가 내 형제들이냐? 하시고

(마 12:49) 손을 내밀어 자기
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,
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!

(마 12:50) 누구든지 하늘에
계신 내 [아버지]의 뜻을 행
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
자매요 어머니이니라, 하시니
라.

(막 3:31) 그대에 그분의 형제
들과 그분의 어머니가 와서 밖
에 서서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
그분을 부르니

(막 3:32) 우리가 그분 주위에
앉았다가 그분께 이르되, 보소
서,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
님의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
찾나이다, 하매

(막 3:33) 그분께서 그들에게
응답하여 이르시되, 누가 내
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? 하시
고

(막 3:34) 자기 주위에 앉은
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시되,
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
라!

(막 3:35) 누구든지 [하나님]
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
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
라, 하시니라.

(눅 8:19) 그대에 그분의 어머
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
께 왔으나 밀려드는 무리로
인해 그분께 다가가지 못하
므로

(눅 8:20) 어떤 사람이 그분께
고하여 이르되, 선생님의 어
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
선생님을 보기를 바라며 밖
에 서 있나이다, 하매

(눅 8:21) 그분께서 그들에게
응답하여 이르시되, 내 어머
니와 내 형제들은 곧 [하나
님]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
하는 이 사람들이니라, 하시
니라.